

LOCAL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나주, 에너지 인프라 ‘AI 전력예측 시스템’ 실증

영광, 공정과세 실현 나서

지방세심의위원 13명 위촉

영광군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3명에 대해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촉식 개최 후 이어진 2025년 제2회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수의 추천으로 이동현 전 세무사가 위원장으로 뽑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법무사 등 위촉직 위원 13명과 당연직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년의 임기 동안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관련 사항 심의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현 위원장은 “40년 동안 활동했던 세무사 시절 다양한 세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강인 영광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방세정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일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 추진을 통해 10만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중요 자주제원인 지방세 분야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화순 꽃강길 공중화장실 신축

방문객·군민 편의 증진 ‘양장’

화순군은 꽃강길 음악분수와 개미산 전망대, 화순전 꽃강길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꽃강길 산책로에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를 완료·개방했다고 21일 밝혔다.

화순전 꽃강길을 따라 산책하는 군민들이 많고, 꽃강길 음악분수에서 삼천교까지 약 2km 구간 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없어 삼천리 꽃강다리 인근에 2025년 화순 봄꽃 축제 개막 시기에 맞춰 공중화장실을 설치했다.

이번에 신축된 꽃강길 산책로 공중화장실은 면적 21.8㎡로, 남·여 화장실 모두 장애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소변기를 갖추었으며, 군민뿐만 아니라 꽃강길 방문객까지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노삼숙 화순군 환경과장은 “공중화장실 개방 이후에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정부 공모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선정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일원에 ESS·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력을 예측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배전·전력 시스템이 나주에 구축된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태계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AI기술로 전력을 예측해 지역 내 에너지 소비, 저장, 조절이 가능한 배전망 유원 자원(NWAs)에 기반한 마이크로그리드 전력시스템 및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일원에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장치를 연계해 송전망 포화, 출력 제한, 계통 불안정성 등 전력 문제를 해결할 ‘분산형 에너지 기술 개발과 실증’을 최종 목표로 수립했다.

세부 사업은 ‘종합스포츠파크 내 기존 태양광 설비 연계 ESS 1MWh’, ‘배전망 연계 ESS 2MWh 설치’, ‘한국전력공사 클라우즈형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FEMS)’,

‘AI 기반 전력 예측 시스템’, ‘P2H(전력-열 변환) 기술 도입’, ‘수요반응(DR)·가상발전소(VPP)·전기차 배터리 연계 분산 에너지 기술 실증’ 등으로 총 사업비 24억원(국비 12억원, 지방·민간 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은 가나아에너지(주)가 주관하고 바스코(CTI)㈜,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이 참여해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남도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구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에너지자립의 해법인 분산 에너지 기술 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실증사업이 될 것이다”며 “한전, 한전KPS, 한전KDN,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나주가 분산 에너지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강진 전라병영성 축제가 관광객 4만여명을 불러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진은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의 모습.

강진 전라병영성 축제, 반값여행 효과 ‘톡톡’

4만명 방문…숙박업소·식당 만원사례

강진 전라병영성 축제가 전국 관광객 4만여명을 불러모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8~20일 병영면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열린 제28회 전라병영성 축제가 개최됐다.

축제 기간 동안 4만3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관광객이 6% 늘어난 것으로,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 축제

박업소와 식당에서는 만원 사례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강진을 찾은 관광객 상당수는 반값여행을 통해 방문했다.

여수에서 모인 회원 12명과 온 한 관광객은 “강진 전라병영성 축제를 즐기고 남미륵사 봄꽃을 본 뒤 푸소 농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영랑생가와 다산초당, 가우도, 고려청자박물관을 둘러봤는데, 회원들이 반값으로 여행을 즐긴다는 사실

에 흡족해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라병영성 축제에 마련된 강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강진만 노을장도 지난 강진 청자축제에 이어 “대박 행진”을 기록했다. 농특산물과 축제장 내 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 체험에 따른 매출액도 전년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원 군수는 “꽃은 날씨 예보로 걱정했는데 오히려 선선한 날씨로 축제가 흥행했다”며 “강진군민을 포함해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전라병영성축제를 즐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

영암, 군민 체감 혁신시책 56건 발굴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2025년 혁신시책 1차 보고회를 열고 56건의 혁신시책을 발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영암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굴한 혁신시책은 국적 없는 아이 포용 지원 프로젝트, 탄소중립 에코 클로버 프로그램,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 리플렛 배포, 교육혁신박람회, 상생투자사업 민원서식 일원화,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 구축, 유류공급 유아체육시설 설치 등

이다. 보고회에서 발굴된 혁신시책들은 영암군의 각 실과소에 제안된 것들로, 앞으로 영암군민과 소통과정을 거쳐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이번에 발굴된 56건의 혁신시책 외에도 영암군은 군민 디지털 접근성 제고, 부서 협업 촉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청년 지역 정착 유도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영암=한형국 기자 hok1342@

“무안연꽃축제, 매력적인 새 이름 찾아요”

군, 25일까지 국민 대상 명칭 공모

무안군은 오는 6월 26~29일 4일간 일로읍 화산백련지 일원에서 열리는 ‘제28회 무안연꽃축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제 명칭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연꽃축제는 백련 개화 시기인 7~8월 중 개최됐으나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는 6월 말에 열린다.

군은 연꽃 개화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축제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축제 명칭 공모에 나서게 됐다.

축제 명칭은 기존 연꽃축제의 상표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화산백련지의 자연과 야간 경관이 어우러지는 축제 콘셉트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공모는 오는 25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www.muam.go.kr)를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hjung11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1명) 30만원, 우수상(1명) 20만원, 장려상(1명) 10만원의 시상금이 각각 지급되며, 선정작은 다음달 중 개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꽃이 피기 전 축제가 열리다 보니 관광객들의 기대와 현장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축제 명칭을 새롭게 만들려 한다”며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매력적인 이름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여수, 21대 대선공약 21개 사업 발굴·반영 건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연안크루즈 지원 등 요청

여수시는 오는 6월 3일에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수 미래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우선 과제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여수 개최, 2026년 섬 방문의 해 지정, 섬 방문 관람객 여객선 반값 운임 정부 지원, 2026세계여촌대회 여수 개최, 2026년 연안크루즈 운항 등을 지원 요청했다.

또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 여수 국제해양레저관광복합센터 건립,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 선정 등도 강조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석유화학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산업인프라 확충 지원, 신산업 대전환을 위한 탄소중립형 산업 육성, 여수~광양 수송 배관망 구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했다.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여수공항 국제공항으로 승격,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철도 고속화 등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정기명 시장은 “건의 사항들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정당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공인디자인전문회사

회사 홍보를 고민하십니까? 다큐디자인으로 오십시오

동행 지역소상공인
광남일보 사명상인

다큐디자인은

- 사보, 사사, 회보, 지명원 등 회사 홍보를 위한 기획,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 기획부터 취재, 원고작성, 사진촬영, 출판까지 One-stop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실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 사보, 사사, 단체사, 회보, 지명원 등 기록물 간행을 원하시는 분
- 자서전, 회고록, 시집, 수필집, 소설, 사진집 등 단행본 출판을 원하시는 분

DOCU
다큐디자인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25번길 6(금동) T. 062)529-7107 M. 010. 8345. 0103